

대행 스님

천지가 내 중심에 한데 꿰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아니, 이 세상에 죽고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먼저 죽고 나중 죽을 뿐이지 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리고 내쫓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환영을 하고 노비도 두둑하게 주고 그냥 뭐, 팥을 넣어서 찰밥을 하고 반찬을 해서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지 스님들이 실컷 먹고도 남았죠, 뭐.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이 어디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국한된 게 아닙니다. 포괄적입니다. 전체입니다. 우리 생활이 그대로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학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설계도가 나오더니 금방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밥 먹겠다고 생각하니까 밥을 먹고, 먹으니까 똥이 나왔고, 이렇게 단계 단계, 그냥 생각대로 사시는 겁니다. 생각대로 나오는 것이고요.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몸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기 갈 생각을 하니까 그냥 몸이 저절로 일어나서 그냥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주인이지 몸이 주인이 아닙니다. 마음은 바로 주인인 것이고 몸은 바로 그 주인을 따라서 움죽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문수, 보현을 모시게 해 놨습니다. 생각을 낸 것을 바로 문수라고 했습니다. 그게 '법(法)' 자입니다. 또 움죽거리는 걸 바로 보현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문수 따로 있고 보현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내면 그냥 법입니다. 생각 내기 이전은 부처고, 생각 냈으면 바로 문수고, 움죽거렸다 하면 바로 그것이 보현입니다. 그러니 보현, 문수,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생각을 잘하면 부처요, 한생각을 잘못하면 중생이다 이 소립니다.

지금 물질적으로도 너무나 개발이 많이 돼서 문화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산이 폭발해도 그 물질적인 재료를 가지고 연구해서 많은 발전들도 가져오고요.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 물질들 이전이 있단 말입니다. 수소 폭탄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 이전이 있을 것이요, 그것도 마음대로 구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게 발전이 됐어도 사람 죽이게만 만들어 놨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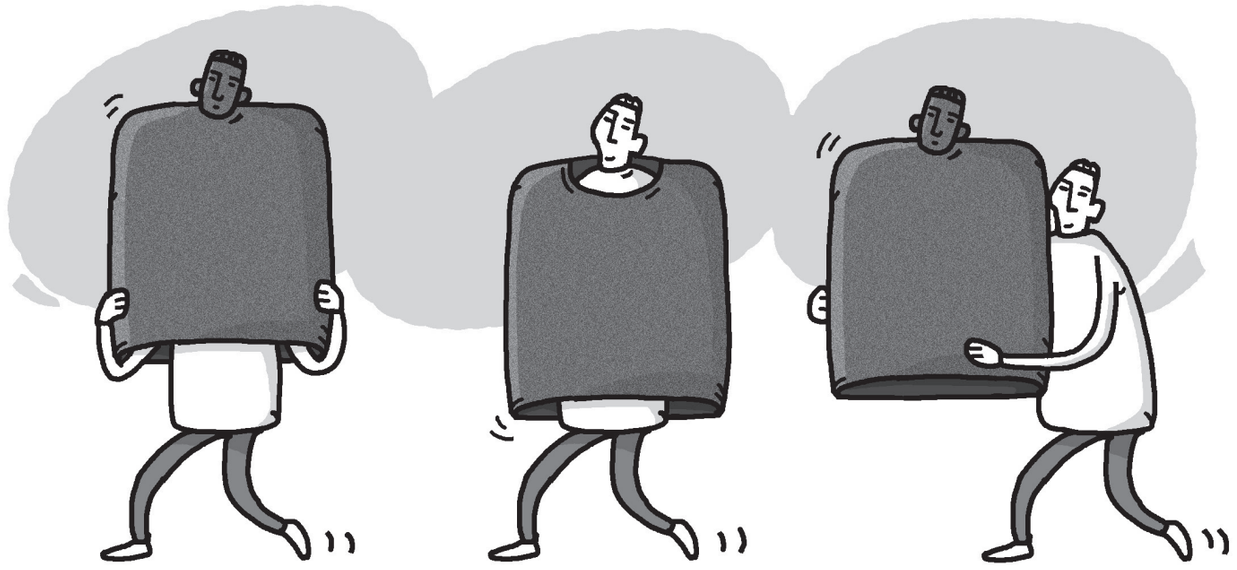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몸뚱이를 끌고 가는데, 몸뚱이를 여러분의 차라고 생각하십시오. 자기네 차라면 자기가 더러우면 닦고 고장 나면 고치고 그러지, 그래 누가 대신 와서 고쳐 주고 대신 닦아 줍디까? 지구도 그렇습니다. 지구가 우리들의 집이라고 한다면 지구가 더럽다고 누가 닦아 주고, 고장 났다고 누가 고쳐 줍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거고, 우리가 닦아야 될 거고, 우리가 수명을 연장시켜야 할 겁니다. 지구에서 자원이 모자라면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으로 모두 끌어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저이는 먹물옷을 입고 별의별 소리, 깡통 같은 소리를 한다고 그러겠죠? 하하하…. "저이는 중이면서도 왜 저렇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경전의 얘기는 하지 않고…." 이러겠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그때 그 시절의 용어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팔만대장경에 다 있죠. 먼저 유(有)의 법을,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무(無)의 법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한데 합쳐서 바로 중용의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세상의 법이나 무의 법이나 통틀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열반하시기 전에 진짜 부처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옷 벗기 전에 이 진리를 탐구해서 다 감응이 되고 짐작을 하는 차원이 된다면 12대 종손까지 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부모의 묵은 빚도 못 갚으셨고 지금 자식들에게 햇빛도 못 주고 계십니다. 몸뚱이나 쓰다듬고 돈이나 줘서 학교나 다니게 하고 재산을 내주는 것이 햇빛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재산을 물려주는 게 '진짜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재산은 하루아침에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조그만 어린애 적부터 "엄마 마음, 아버지 마음, 사대 성인들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 풀 한 포기 버리지 않는 그 마음이 전부 네 마음속에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한다. 그러니 그저 아빠 엄마가 벌어다 주고 밥해 주고 그런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먹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아프면 "애! 지금 아픈 것도 네 몸에서 아픈 거니까 네 주인공밖에 낫게 해 줄 수 없다고 네가 관해서 네가 나아라." 이렇게 자꾸 가르친다면 그 어린애가 자꾸자꾸 체험을 하게 돼요.

지금 그렇게 체험해서 알아 가는 선원 학생들 중에 어떤 애는 학교에 들어가는데도 30명이 넘는 애들을 제치고 거기 합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뭐든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자기가 안다는 말 없이 그냥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대로 자기 생활을 자기가 해요. 세상에, 이러는 걸 볼 때 내가 외려 고맙고 너무나 기쁘단 말입니다. 걔가 그렇게 잘 사는데 왜 내가 기쁩니까? (중략)

하여튼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도 서쪽으로 간 까닭도, 우리가 지금 층층대를 오르고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기에 층층대가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은 볼 일이 있다면 층층대를 올라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이 아파트의 2층이라면 거기 내 집이 있으니까 그냥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올라갔죠? 그랬는데 또 내려갈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또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이고 서쪽으로 가는 까닭은 무엇이냐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봐도 아니 닿는 데가 없죠. 그 두 까닭이 한 까닭이죠. 여러분이 다 그 도리를 아신다면 인제는 어디다 세워 놔도 당당하고 어디다 세워 놔도 싱긋이 웃으실 겁니다.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보면 보는 대로 놓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지 자신이 없다면 당당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발견한다면서, 지금 20년 30년이 되도록 수박을 놓고 '이거 뭣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박인데도 그 수박을 놓고 자기가 '이거 뭣고?' 하고는 10년도 보내고 20년도 보내요. '이거 뭣고?' 하고요. 지금 '뭣고' 하고 있을 시대입니까?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 자체가 바로 참선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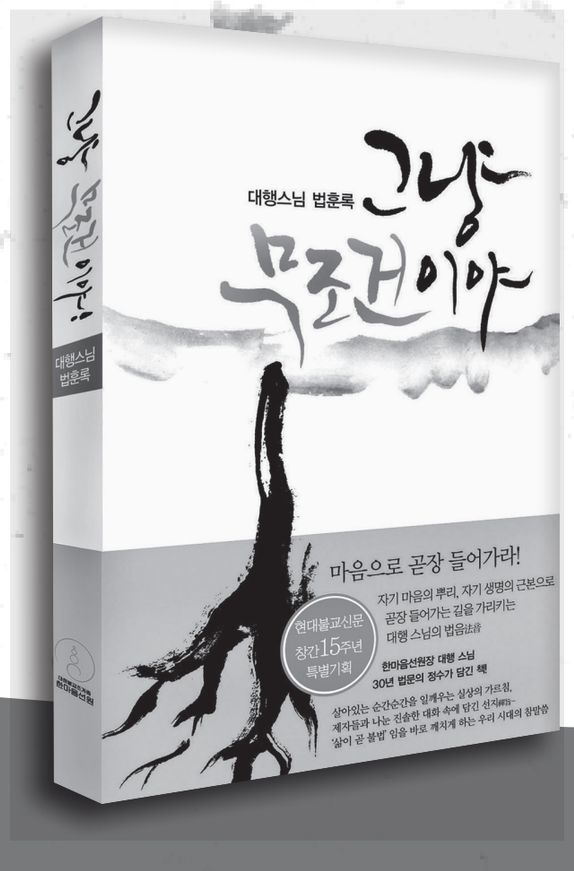
예전에 어느 선지식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삼계에 내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고 가는 것이 그대로 좌선이니라. 내가 나라는 것을 세우지 않고 가는 것이 좌선이니라." 이랬죠. 그것이 내 주인공한테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는 심봉입니다. 맷돌 돌아가는 데도 심봉이 꿰어져야 맷돌이 돌아가지요. 그럼 물건이 생기는 대로 거기다 놓고 갈아 내는 거죠.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맷돌과 같습니다. 천지가 내 중심에 한데 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있어서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막 돌아갑니다. 어떠한 물건이 생기든지 거기다 넣어서 갈아 내서 요리를 해서 먹어라 이겁니다. 이거를 터득해라 이거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그렇게 무조건 수박을 쪼개서 먹어 본다 이겁니다. 어떠한 거든지 말입니다. 전력 120볼트가 있으면 220볼트가 120볼트를 집어삼키듯 그렇게 뭐든지요. '부처다!' 하고 나타나더라도, 꿈을 꾸더라도 '허, 내 주인공에서 화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 이끄는 것이로구나. 감사하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거기 또 놔야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놓는 거예요. 놓는 자리가 따로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꿈이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 놓으세요. 보세요. 여러분이 잘살 것이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